

100% 영생의 확신만 가지면 구원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

이 진리를 의심 안 하고 확신만 하면 그는 벌써 50% 이상은 이루어졌다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왜 필요하냐 하면 구세주가 50%를 벗겨주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만 이루어지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50%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영생의 확신을 갖고 이 진리를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100% 확신만 가지면 그건 구원이 확정된 거나 다를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을까?” 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것은 바로 확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을 느끼면 확신을 갖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변화가 오느냐면 바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한 이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긴자가 되어 나타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 그 이긴자는 이슬성신을 들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 생미륵불도 역시 감로수가 되는 이슬을 들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 정도령도 역시 감로해인이 되는 이슬을 들고 나온다는 것 등을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범죄하면 기회 없어

성경에 “진리를 알고 범죄 하는 자는 사함 받을 길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진리를 알고 범죄를 하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제단을 나오는 건 좋은데, 승리제단 나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후보자가 되고, 영생 얻을 수 있는 후보자가 되어서 좋기는 좋은데

승리제단 나오므로써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진리를 알면서 범죄하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그것으로써 기뻐하고 감사하기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범죄를 하게 되면, 그건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길인고로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범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범죄는 다 용서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욕 돌리는 말 한 마디만 하면 그건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간증담 말씀할 때에 입에 재갈을 물고 살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볼 수 없는 것을 많이 봤지만 그것을 입에다 담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입에다 그 말을 담지 않았던 것입니다.

축복 받는 말과 행동을 해야

그러므로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 말을 한 마디만 했다 하면 그건 영원무궁토록 사함 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하려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말밖에는 입에 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누(累)가 되는 말을 한 마디만 하면 그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대로 진리를 알고 범죄 하는 자는 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에 걸리는고로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완성의 이긴자가 메시아절이라든지, 이슬성신절이라든지, 승리절이라든지 하는 큰 행사 때에 여러분들에게 왕의 반열에 선다고 하는 축복을 할 때가 있고, “과



구세주 조희성님

거에 지은 죄를 기억도 안 한다.” 하고 사면할 때가 있는데, 그 사면령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 범죄만 안 하면 이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면령을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그는 몸 상태도 달라지고 은혜 오는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중복해서 범죄를 하는 자는 그 다음에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 받을 수가 있고 사함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욕 돌리는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거스르는 죄인고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있는 사람이 지난날 연단받았던 과정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람을 가지고 이유 없이 마귀새끼라고 그러고, 이유 없이 두드러 패고, 이유 없이 이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을 가할

때에 이 사람은 한 번도 대항을 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때를 때리면 때를 맞고,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먹살 쥐고 끌어내리면 끌려 내려오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해져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고로 영생의 확신이 오면서 영생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고로 점점 이루어지는 이 사람을 마귀만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새끼들이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을 욕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한방 같으면 금방 쓰러져 죽을 정도로 최악한 사람이 가래침을 뱉고 가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이 화가 나지 않았던 것은, 영생의 희망과 소망이 있

는 고로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이 사람이 화가 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히 생각하고, 도리어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게 되었고, 30년간을 끝까지 미워하던 사람도 결국에는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해서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점점 강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30일씩 금식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30일씩 금식기도를 할 때는 바로 입 안에서 뱃속까지 항상 24시간 차고 넘치도록 생수가 연결되는 때였던 것입니다. 생수가 강하게 연결되는고로 30일씩 금식기도를 해도 얼굴 하나 마르지 않은 원상태 그대로의 얼굴을 하고 금식기도를 했다면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인 진짜 양식을 먹으니까 세상 양식을 안 먹어도 살 수가 있는고로 30일씩 금식기도를 14번 했던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과 소망이 꼭 차게 있었고, 영생의 확신이 있었던고로 씩씩 양식을 먹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생수가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1991년 11월 16일 말씀 중에서 원현욱 기자 정리

영생의 확신과 희생적인 마음이 생명의 열매

이 사람이 30일씩 금식기도를 했다가 이제 초창기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 흉내를 내고 밥을 안 먹는 수가 있어요? 아무나 금식기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긴자가 쓰던 무기를 흉내 내면 안 되는 것은, 이긴자가 쓰던 무기는 이미 노출돼서 마귀가 아는고로 노출된 무기는 사용해 봐야 소용이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신무기를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 무기가 바로 초초로 완성의 이긴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열매이면서 마귀 죽이는 무기인 것입니다. 또한 영생의 확신과 희생적인 마음이 생명의 열매이면서 마귀를 죽이는 무기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욕심의 마음, 정욕의 마음이 마귀인고로 희

생적인 마음만 가지면 바로 욕심의 마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의 이긴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면 이 세상에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다 예쁘고 다 귀엽고 그렇게 아름답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눈에 보이니까 항상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의 마음이고, 자비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나? 혹시 형제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형제의 허물을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같이 사랑이 차고 넘치고 자비로운 마음이 차고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김주호 기자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유전학적 내세관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무수한 종류의 파동을 통해 서로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고, 개개인의 사념의 파장들은 마치 전파들의 파장이 서로 다르듯이 각각 고유한 파장으로 다르게 지구공간과 우주공간에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두 가지 유형의 초능력 현상을 설명해 본다.

으로 자주 발생한다. 집에 있는 주부가 출근한 남편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거나 상처 입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텔레파시를 경험하게 된다. 나중에 주부는 텔레파시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에 남편이 사고를 당했음을 알게 된다.

링컨: 꿈에 자신이 관속에 들어있는 것을 본 후 실제로 암살됨

생각의 파동들은 오감(五感)만으로는 도저히 감지할 수가 없다. 우주에 존재하는 파동들을 임의로 감지하려면 우리의 의식이 우주로 확장되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초능력자들이 무수한 파동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파동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은 못 된다. 왜냐하면 TV를 사용하는 사람은 무수한 전파 방송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송을 듣기 위해 어렵지 않게 채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투시’는 텔레파시처럼 어떠한 실상을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심안(心眼)으로 보는 것이다. 투시술이란 육안으로 먼 곳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와 현재의 시간에 일어나고 있지 않

는 과거나 미래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 1865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죽음에 관한 꿈을 꾸었다. 그는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문상객의 길다란 행렬을 보았다. 링컨은 그 행렬을 따라 관으로 다

텔레파시, 투시술, 예지력 등 초능력 실재 우리 내면에 있는 미래를 보는 제3의 눈 때문 이러한 예지력은 인간 본성에 내재한 수많은 능력 중 하나

가갔는데, 관 안을 들여다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관 안에 자신의 시체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6주 뒤, 링컨은 극장에서 총에 맞아 죽는다.

현재 사람을 주장하는 주체의식은 대부분 신과 인간 동물성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체로 신과 같은 초능력의 발현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신상, 또는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에게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시는 잠재된 초능

력이 발현되는 양상이 왕왕 벌어진다. 투시에 의해 현재의 우주의 실상들을 볼 뿐만 아니라 과거나 미래의 형상도 볼 수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의 현대 존재 양상(피의 내력)은 과거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며, 현재 나의 존

바바 반가, 1911년 불가리아 태생의 시각장애인이었다. 바바 반가는 1985년 불가리아 대지진,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2차 세계대전 발발 등 수많은 사건을 예언했다.

력은 또 미래와 하나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수도자들이 주문 수도 중 죽은 조상의 모습을 본다거나, 기독교인들이 기도 중에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불교신자들이 부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 자신의 몸 안에서 물리학적 법칙, 생리학적 사고와 작용이 빛어낸 결과이다.

‘예지력’이란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능력이다. 신이한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바바 반가: 브레즈네프 조인 받기도 바바 반가는 어린 시절 토네이도에 휩쓸리는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됐다. 이후 과거와 미래의 일을 환영을 통해 보게 된 그는 놀라운 예지력으로 유명 세를 됐다. 이후 불가리아 공산당 서 기관 토도로 지프코프, 소련 공산당 서기관 레오니드 브레즈네프까지 그 를 정기적으로 찾으며 조언을 구한 바 있다. 이후 바바 반가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며 1996년 8월 11일 8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는 죽기 전 5079 년까지의 예언을 남겼고, 1997년 다 이에나비 사망과 2011년 9.11 테러까 지 적중하며 그의 예언에 대한 사람들 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예언 중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며 지나치게 추상적인 예 언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 고 있다.

바바 반가는 어린 시절 토네이도에 휩쓸리는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됐다. 이후 과거와 미래의 일을 환영을 통해 보게 된 그는 놀라운 예지력으로 유명세를 됐다. 이후 불가리아 공산당 서기관 토도로 지프코프, 소련 공산당 서기관 레오니드 브레즈네프까지 그를 정기적으로 찾으며 조언을 구한 바 있다. 이후 바바 반가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며 1996년 8월 11일 8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는 죽기 전 5079년까지의 예언을 남겼고, 1997년 다이에나비 사망과 2011년 9.11 테러까지 적중하며 그의 예언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예언 중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며 지나치게 추상적인 예언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동물도 예지 본능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의 예지력은 어떻게겠는가?

우리는 생활 속에서 발현되는 예지력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꿈이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예지력이 꿈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신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 큰 송아지가 품에 들어온다든지, 탐스러운 과일이나 꽃을 한 아름 따다든지 하는 식의 태몽을 꾸는 경우가 그렇다. 비슷한 예로 돼지꿈을 꾸 후에 복권에 당첨되거나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오래전 돌아가신 조상들을 꿈에서 본 후 몇 백 년 묵은 산삼을 캔 심마니의 이야기도 종종 접하게 된다.

이외에도 교통사고나 대형 참사를 눈앞에 두고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천만다행으로 피해 갔다는 사람, 반대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를 무시하였다가 큰 불변을 당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된다. 이것은 모두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직관의 힘, 미래를 바라보는 제3의 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지력 또한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수많은 능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

김주호 기자